

문화산책

지해나

광주시립극단 운영실장



공연 예술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대 공연의 형태는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장르를 불문하고 영상과 시각적 효과를 결합한 융·복합 공연부터 VR?AR과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한 관객 참여형 공연과 같이 오늘날 무대 위 창작물들은 화려한 기술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제작자와 프로듀서들은 더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앞다투어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작품 자체의 본질이 희생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과 공연의 화려함에 집중하다 보면, 작품의 근본적 메시지와 예술적 깊이가 희미해지기 쉽다. 예술의 창작성과 개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나친 장식은 작품의 공간을 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현재 예술행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본 전공은 피아노이다. 대학 시절 나의 은사님은 김대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으로 엄청난 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그리고 문화 행정가이다.

그 분의 교수법은 모든 음악교육자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고, 제자들은 각종 국제 콩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 국내 음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그분의 지도

기고

김표현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농업과 식품 산업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거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바로 수확·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겉집, 씨앗, 잎, 착즙박, 규격 외 농산물 등 다양한 부산물이다. 세계적으로 쓰레기와 탄소배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중 농식품 폐기물은 연간 약 500만t, 원료의 10~50%에 달하고, 처리비용만 해마다 8000억원을 넘는다.

이것이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버려지는 부산물 속에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성분이 풍부하지만, 추가 인력·비용 문제와 기존 공정과의 충돌로 인해 그동안 ‘버리는 비용’으로만 여겨져 왔다.

대부분의 부산물은 수분·당분 함량이 높아 부패가 빠르고, 품질 변동과 계절적 편차도 커 표준화가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농가·가공업체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업사이클링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부산물은 오히려 새로운 산업 자원으로 재

지속 가능한 공연을 위한 한 가지 조건:기반

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일이 흔한 일이다. 나 역시 10대 시절, 두근거리는 마음과 그분을 찾아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첫 레슨 날, 준비한 곡을 모두 연주하자 교수님은 단 한 마디를 던지셨다.

“기본기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구나.”

오디션을 거쳐 들어간 예비학교 (현 예술영재교육원) 첫 수업에서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교수님은 나의 음악을 새로 시작하기를 요구하셨다. 고전 곡을 통한 기본기 훈련, 체계적인 레퍼토리 과제, 손가락 기법과 악보 해석 연습으로 가득 채워졌다.

어린 마음엔 속상함도 있었고, 하루 빨리 대곡(大曲)들을 익혀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며, 기본부터 단단히 다지는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교수님은 어느 날, “연주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무대에 오르면 네 안에 자리 잡은 기본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지.”라고 하셨다. 교수님의 교육 방식은 나의 음악 인생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스럽게 나를 다듬게 해준 시간이었다. 겉멋만 가득한 연주는 순간 반짝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화려함은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흔들리게 된다. 창작물의 개성에도 반드시 기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화려한 영상,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향 시스템 그리고 관객 참여형 공연도 결국 탄탄한 기본기와 예술적 고뇌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예술단체의 행정 총괄로 일하며, 나는 요즘 조직 운영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한다.

시스템을 만드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 시

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튼튼한 하드웨어’다. 이 하드웨어는 단순한 장비나 인력이 아니라, 표준화된 규정과 절차, 의무와 책임 등 조직 운영의 근간을 뜻한다. 이 기반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구조를 올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꺾눌 수밖에 없다. 눈에 띄는 이벤트나 새로운 시도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먼저 정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체 브랜드 공연 개발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창출은 모든 공공 예술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다. 일시적 흥행이나 외형적 화려함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우리의 조직이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관객 수의 확장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문화예술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대예술에서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 관람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술단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간의 주목을 받는 방식을 넘어, 기본기?운영체계?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세가지 축을 견고히 연결해야 한다.

예술성과 시스템, 창의성과 기본기, 단기성과와 지속가능성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들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공연과 문화예술의 가치가 탄생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쌓고 있는가?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화려함은 순간을 밝히지만, 견고한 기반 위의 예술과 조직은 오래도록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농식품 부산물, 전남의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

조명되고 있다. 맥주·식혜 제조 후 남은 맥아를 대체 밀가루로 만들어 예니지바나 크래커를 생산한 사례, 비지·착즙박 등을 기능성 식품이나 발효 소재로 활용한 사례는 부산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남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부산물 자원화 연구가 활발하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홍화 줄기·잎을 이용한 뼈 건강 소재 개발, 양파 전초의 쿼세틴 기반 항산화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경화된 갯기름나물, 고구마 순, 어린 토란 등 저활용 자원을 발굴해 특허·기술 이전·상품화로 이어진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처리·저장 기술, 수급 체계, 산업체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나주에는 푸드업사이클링 산업을 지원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전남은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산업화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전남의 양파 생산량은 연간 50만 톤, 배추는 67만 톤에 달하며, 배·매실 등 과일 가공 과정에서도 다량의 부산물이 발생한다. 부산물은 원래 폐기되던 자원이기 때문에 원료비가 낮고 지역경제 순환 효과가 크다. 기업에는 ESG·탄소 감축·친환경 이미지 제고라는 장점도 제공한다. 전남의 농업 기반과 산업체 협력 구조가 결합된다면 부산물 업사이클링은 전남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산물 자원화의 핵심은 결국 현장 가공업체의 참여에 달려 있다. 부산물 발생량과 품질 변동 등 핵심 데이터는 가공업체만이 정확히 알고 있으며, 수거·전처리·저장·유통 체계도 업체의 작업 환경과 맞물려야 현실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에 인력·시간 부족으로 조사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 행정 간소화, 자동화 기반 자료수집 시스템 도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전남을 포함한 8개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업사이클링 기업 등이 2025~2029년까지 부산물 발생 조사, 제도 개선, 전처리·저장·유통·활용 모델 구축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물 자원화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농가·가공업체·지자체·연구기관·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장의 가공업체가 있어야 한다.

농식품 부산물은 더 이상 버려야 할 부담이 아니다. 전남처럼 농업 기반이 크고 관련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순환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산물을 미래 자원으로 전환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남은 환경·산업·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이전 신속 진행돼야

10여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이 마침내 전격 합의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이해 관계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이 도출됐다.

지난 2007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2년 만에 이전 대상지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날 19일 사전 협의에서 마련된 정부 중재안을 바탕으로 장시간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을 큰 틀에서 보면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이후 군 공항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민간공항 기능을 이전하고, 군 공항은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지정과 타당성 조사, 주민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자체 재원과 정부의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조성 방안도 신속 제시키로 했다.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에 국가농업 AX플랫폼 구축, 에너지신산업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무안국가산업단지도 신속히 지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 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무안군도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지역 최대 숙원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의 쟁점이었던 이 문제가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전격적으로 합의는 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먼저 최소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군공항 이전 비용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시가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 행정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실제 이전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부담이다.

광주와 전남, 특히 무안이 ‘원원’할 수 있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문제가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광주시 영산강 수질개선에 올인하는 이유

광주시가 영산강 인근에 인공습지를 조성한다. 광주 북구 용두교와 산동교 인근 약 6만5570㎡부지에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광주시는 내년에는 확보된 국비 5억원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향후 조성공사는 영산강의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 수변 여가·관광·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인공습지가 조성될 경우 영산강 오염물질 흡수와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수생태계 회복과 친수공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광주시의 장기 프로젝트인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과 연계돼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해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약 11km 구간의 수질을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천수와 하수처리수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만t 규모의 정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화된 물은 평상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돼 수생태계 회복과 친수기반을 마련하고, 가뭄 때는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한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강수량 감소에 대응한 광주시의 전략적 물관리 대책인 셈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영산강 현지조사와 수질 변화 예측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다져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내년 3월 물순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지원하는 환경부의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광주시가 이처럼 영산강 수질 개선에 올인하는 것은 언제 가뭄이 계속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취재수첩

광주FC, 시민구단 새역사 이어가길

송 하 중

문화체육부 기자



올 시즌 프로축구 광주FC는 믿기 힘든 활약을 펼쳤다. 시작은 창단 이후 처음 참가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에서였다. ACLE16강전에서 J리그 최강팀 비셀 고베를 상대로 맹활약을 펼쳤다. 이에 1·2차전 합계 점수에서 앞서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8강전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 역대 시·도민 구단 중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다. 더욱이 2024~2025 ACLE에 진출했던 울산HD와 포항스틸러스가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게 8강까지

진출하며 K리그의 자존심을 지켰다.

코리아컵 무대에서도 광주의 활약은 이어졌다. 구단 사상 첫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에서는 리그 압도적 선두로 조기 우승을 달성한 전북을 상대로 대등한 승부를 펼쳤다.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투혼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약재에도 K리그1 3년 연속 잔류에 성공했다.

이렇듯 역대 최고의 시간을 보낸 광주지만, 울겨울은 혹독할 예정이다.

구단의 황금기를 이끌어왔던 이정호 감독의 이적이 유력해졌다. 광주가 최고 예우와 시스템 혁신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광주는 아사니 연대기여구 미남 여파로 FIFA로부터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또 K리그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제재가 예정됐다. 이정호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다. 특히 올 겨울 전력 보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재까지 났었다.

광주는 올해를 끝으로 9명의 선수가 자유계약(FA) 자격을 취득했다. 공격수 김한길·하승운, 미드필더 오후성·이강현·주세종, 수비수 안영규·이민기·조성권, 골키퍼 김태준 등 대부분이 주축 선수들이다. 외부 영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과마저 잃게 된다면 스쿼드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광주는 구단 레전드 안영규와 하승운, 프리드온슨과 연장 계약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김한길이 용인FC로 등지를 옮겼다. 여기에 핵심 수비수 변준수와 조성권의 이탈 또한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결국 내년 강제 리빌딩이 예정된 셈이다. 유망주들도 키워내면서 다시 선수 등록이 가능한 여름 이적시장까지 버텨내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 광주가 그간 술하게 보여준 기적들이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시민구단의 한계를 딛고 맹활약을 펼쳤던 광주가 앞으로도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구단으로 남길 바란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정 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